| 현불 논단 |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국가유산 명칭 변경 재고해야

문화재→국가유산 변경 본격화
문화재청, 하반기에 개선 추진
"日잔재, 재화 의미 강해" 이유

전통 · 근대유산으로 양분화돼
유산도 '재화' 의미 강한 단어
비용 들여 명칭 바꿔야 하는가

우리 불교가 이웃 서양종교에 앞서는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재다. 중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분리되면서 불교는 고대 · 중세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근현대 역사에서 소외됐다.

불교문화재가 국보와 보물의 70%를 차지한다. 불교가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금자탑이다. 일제는 1943년 보물 340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였다. 해방 후 정부는 1955년 북한에 있는 보물을 제외하고 모두 국보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보를 다시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에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을 '국가유산(遺產)'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전달했고,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히 통과시킬 계획임을 발표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불러온 '문화재'란 명칭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한 것으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유산분류체제와 상이(相異)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상위분류(근거법령)에서 '문화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중국은 '문물(文物)', 영국은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프랑스는 '유산'이라고 표기한다. 자연물(천연기념물), 명승(경관),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財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2002년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 건축된 유물과 유적을 '국가등록문화재(1호-80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이 교회와 미션학교 건축물이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불교문화재는 국사 교과서에서처럼 불교문화재는 전통국가유산이 되고, 새로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국가유산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중국과 일본 등 동양의 국가에서는 '문화재'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처럼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38건으로 1위이고, 일본이 2위, 우리나라가 21건이 지정돼 세계 3위이다. 불교 무형문화재는 영산재에 이어 2020년에 연등회가 지정됐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이 3위까지 등록된 문화 강국이다.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가 재화의 수단이 되는 재산의 의미가 있어서 불경스럽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가유산(國家遺產)'은 더 재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유산(遺產)은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유산(有產)은 "재산이 많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문화재청이 모든 국민이 잘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변경해야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도 변경해야 한다면 '국가유산' 보다는 '국가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문화민족의 자긍심과 문화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본다.

독일의 언어철학자인 훔볼트는 "우리는 언어가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가 인간의 사유와 존재를 규정한다. 모든 사물은 명칭 즉, 이름이 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쉽게 그 사물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한다는 말이 이름과 사물의 실제가 서로 잘 합당하다는 뜻이다.

社 說

'연등회' 관심 고조, 포교로 잇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온라인상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사상 최다 인원 참여 후 3년만에 열린 만큼 검색량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관심을 받았다. 구글트렌드와 네이버데이터랩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연등회가 취소된 2021년 대비 약 5배가 넘는 검색량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2021년에 비해 높은 87%를 기록했다.

3년 만의 연등회 개최로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SNS 상에서는 리오프닝 시기에 맞게 서울 볼거리와 함께 연등회를 소개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불교계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법회 및 기도 중단과 연등회 취소라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을 따랐다. 이에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종교활동 제한이 신행, 수행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세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해왔다.

이번 연등회 개최와 이에 따른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관심 증가를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잇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교계는 산사음악회와 개산대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사찰로 오게 하는 문화전법 포교를 진행해왔다. 리오프닝 시기 사찰이 보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더욱 친밀감 있게 대중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과 글 등의 증가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불교에 대한 인터넷 홍보 등이 필요한 때다.

'리오프닝' 템플스테이, 활성화 기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템플스테이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올해가 운영 2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더 반갑다. 특히 템플스테이 운영 기관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회공익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20주년을 맞아 알리는 특별템플스테이인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인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로 진행된다.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세대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더하기 템플스테이'도 12월까지 계속 이뤄진다.

외국인 템플스테이도 오랜만에 활발해졌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뤄지는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가 활기를 띄고 있다. 5월 3~4일 순천시와 함께 개최한 '송광사 템플스테이+지역 명소 탐방' 프로그램이 이를 잘 보여준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 본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과 불교가 손을 잡고 시너지를 창출한 데 의미가 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사업 확대와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다. 리오프닝이 시작된 올해,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마음 속 꽃을 피우길

5월의 산은 엽록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강물은 기쁨에 겨워 파란 윤슬(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로 빛난다. 세상은 싱싱한 설렘으로 혼곤한 봄을 깨운다. 사람들은 부산하게 일어나 교외로 나가느라 휴일의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철쭉이 만개한 산등선이나 청보리가 넘실거리는 들판은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안처럼 북새통을 이룬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관광객이라 한다. 그렇다면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까? 관광객(觀光客)이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관(觀)'자는 '황새 雚(관)'자와 '볼 見(견)'자가 결합한 모습이고, '雚(관)'자는 '새(隹)'가 커다란 두 눈을 갖고 있는 형상이다. 즉 관(觀)자는 황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사물을 두루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자꾸 보아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생·각(生·覺)을 얻게 된다. '생각'이란 단어에서 생(生)은 나온다는 뜻이고, 각(覺)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림 · 최주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생성이고, '나 있음'이 존재다. 생각을 일으켜야 존재가 된다는 것인가. 생성이 존재고, 생각이 존재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면 빛(光)을 보게 된다. 관광(觀光)이란 진리의 빛을 보는 것. 본질을 꿰뚫어 보아 각(覺)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 있음, 나를 볼 수 있는 자각(自覺)을 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보는 것, 진리가 눈동자에 있다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팔정도에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가 들어 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라고 한다.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생각도 멈출 수 없다. 숨이 육체적 호흡이라면 생각은 정신적 호흡이다. 생각은 아무리 해도 걸리는 것이 없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바탕(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꼭 관광지를 찾아가야만 하는가? 산과 바다가 나에게 오도록 하면 어떨까. 내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연꽃 위에 앉아서 스스로 있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고 있다. 마음의 눈을 뜨면 내가 산이고 꽃이다. 생각을 깊이 하면 밖에 있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연화장의 세계를 볼 수 있으리라.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